

“축구에 관한 모든 것 경험하고 싶어”



호남대 축구학과 주호진 교수

“축구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선수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도 경험하고 있으니 방송 해설자나 축구부 코치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전북 현대 등에서 축구선수 활동을 이어왔던 호남대 축구학과 주호진 교수(39)는 지난 2015년 호남대 축구학과에 스카우트돼 지금까지 4년간 축구선수와 축구행정가를

초등학교 때부터 18년간 축구선수 활약 “해설자·축구부 코치·행정가 등도 도전”

꿈꾸는 인재들을 키워오고 있다.

지금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다’는 주 교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으로 재학 중이던 인천 부평초 축구감독에게 발탁됐다.

부평초 4학년 재학 중일 무렵, 남들보다 발이 빠르고 순발력이 좋았던 그는 당시 부평초 축구감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축구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어렵다는 프로축구팀까지 입성했다.

전북 현대에서 1년 선수생활을 마치고, 당시 광주 상무에서 2년을 보낸 그는 상무에서 제대할 무렵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했고, 그 곳에서 28살까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선수로 활약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축구선수로 활동하다보니 선수가 아닌 새로운 축구행정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주 교수.

그는 “축구선수로서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후회없이 18년간 뛰었다”며 “인생의 찻터1을 끝냈고, 축구행정가로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뛰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주 교수는 1년여간의 공부 끝에 리버풀대학 축구산업과정에 입학, 32살의 젊은 나이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해 선수로 뛰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행정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다 호남대 축구학과와 인천 유나이티드간 MOU체결에 중점적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버풀에서 공부했던 지인의 추천으로 지난 2015년 호남대 축구학과 교수로 재직해 자신

의 경험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주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은 ‘스포츠 사회학·축구전술 및 전략’으로 일반 행정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사회학과 스포츠를 접목한 과목을, 대학 선수들에게는 전술과 전략 등을 가르친다.

프로 축구선수, 프로 축구팀 행정, 대학 교수 등을 경험한 그는 축구에 대한 모든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한다.

주 교수는 “선수로서 생활했던 18년의 경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도 되고 싶고, 해설자 등 축구에 관한 모든 분야를 두루 경험해보는 것이 목표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삶도 기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충찬 기자

전남대 ‘용봉대동놀이’ 개막 ‘빛·트윈’ 주제로 이틀간 열려

전남대학교는 학교축제 ‘2018 용봉대동놀이’를 4-5일 이틀간 용봉캠퍼스 일원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빛·트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첫날 오후 6시 용봉가요제를 시작으로 ▲8시 개막식 공연 ▲뮤지컬 ▲인터뷰 ▲초대가수 ‘선미’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5일엔 ▲전대인 장기자랑 ▲추억의 노래 경연대회 ▲초대가수 ‘에디킴’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기획행사로 소중한 사람에게 대신 편지를 전달하는 ‘개릴라 이벤트’, 스태프를 채우면 상품을 교환해 주는 ‘용봉대동놀이 도전일지’, 봉지에서 캠프를 즐기는 ‘봉지 테마꾸미기’, 함께 퀴즈에 참여하는 ‘도전 골든벨’, 야외에서 캡슐을 찾는 ‘보물찾기’,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하라’ 등 재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전개된다.

아울러, 보조운동장 및 캠퍼스 곳곳에서 ▲길놀이 ▲사물놀이 ▲강강술래 등 용봉대동놀이 가을 곳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축제기간 동안 대운동장 주변 잔디밭에는 10여개의 주막과 야시장도 운영된다. 다만, 주막에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새로운 대학축제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교측은 이 기간 학내 야간차량통행을 일부 통제하는 동시에 응급사고, 화재·전기 안전사고 및 음주 사고 등에 대비한 사고상황별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대응절차를 수립해 전파하는 등 안전한 축제를 치르기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고광민 기자

전남대, 생활지원형 장학금 신설

학기당 120만~200만원...심층면접 통해 선발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생활지원형’ 장학제도를 마련,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학측은 성적이 아닌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학업수행과 생활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신규제원과 기존 장학금을 일부 변경, 19억원 규모의 새 장학금 제도인 생활지원형 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장학금은 ‘열정’·‘동행’·‘도전’ 등의 유형으로 나눠 한 학기당 1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열정’은 교내 부속 기관과 생활협동조합 등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특히 생활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학생은 재학생과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보한 학생들까지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졸업 유보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없었다. ‘동행’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1~3학년생은학업지원형·4학년은취업 지원형·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은 위기 도움형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도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을 기준으로 장학금 혜택을 준다. 외국어 능력과 자기개발 등을 평가하거나 미래 계획·대학원 진학 등에 따라 ▲비상형 ▲돌움형 ▲미래형 ▲자율형 등으로 세분화해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대가 지난해 지급한 교내외 장학금은 604억원으로 학생 수는 1만 9,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생활지원형 장학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명에 달해 전체 학생의 70%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이 장학금 제도의 특징은 학교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등록금 감면 이외에도 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매진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대촌 한마음 체육대회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간의 화합등을 위해 3일 오전 광주 대촌중학교에서 열린 대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주민들이 여성팔씨름경기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고법 6년간 재정신청 인용률 1.1%

광주고법의 최근 6년여간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 제도의 공소제거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건수는 9만651

건이었다. 이중 공소제거가 결정된 것은 685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 인용율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술이 웬수어”

○...노래방기기 모니터에 유리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일행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남 모씨(41)는 지난 2일 밤 11시 30분께 북구 일곡동 한 노래방에서 일행이 모씨(40·여)가 모니터에 유리컵을 던지자 “위험하게 뭐하는 것이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노래방 주인도 아닌 남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정마저 깨트린 술이 웬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충찬 기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